

# 중·소 韓人の 삶 담은 포토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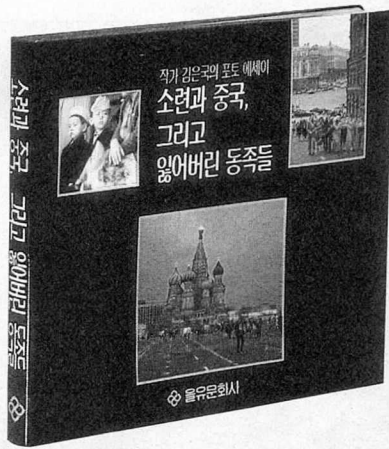
김은국 글·사진 「소련과 중국, 그리고 잃어버린 동족들」

장편소설 「순교자」로 잘 알려진 在美작가 金恩國씨가 소련과 중국을 방문하여 그 땅과 그곳에서 사는 韓人들의 삶을 담은 사진과 글을 함께 묶어 「소련과 중국, 그리고 잃어버린 동족들」을 펴냈다.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 '통속적 기행문'도 '예술적 사진집'도 아닌 이 책은, 작가가 국내 TV社의 취재진과 함께 지난 87년 여름과 88년 봄에 각각 중국과 소련을 방문했을 당시 취재여행 틈틈이 개인적으로 찍어둔 사진들을 가려뽑은 일종의 영상기행집. 중국에서는 '朝鮮族'으로, 소련에서는 '카레스키'로 불리는 한인들의 삶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러나 진한 감동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이역땅 長春과 龍井에서, 혹은 알마아타나 타슈켄트에서 원천적으로 떠돌이일 수밖에 없는 한인 동족들의 끈질긴 생존의 뿌리를 더듬어올라감으로써 그 떠돌이적 운명의 서글픔과 이를 극복해내는 낙천적 삶의 단면단면들이 우리 앞에 새삼스런 감회로 제시되고 있다.

北京, 瀋陽, 長春, 하얼빈, 延吉, 龍井, 白頭山으로 이어지는 중국편은 작가가 부모를 따라 만주에 이사해 살던 한때의 유년기체험이 함께 어우러져 "이곳이 중국땅임을 깜박깜박 잊게



하는" 한인 교포들의 동질성을 보여준다.

'西塔民族風味街'라는 멋진 이름을 가진 심양의 조선족 식당가, '고급복장 춘향'이란 간판이 내걸린 연변의 한복전문점, 그리고 하얼빈 골목의 빵튀기 아저씨의 모습 등에서 우리는 중국교포들의 한민족으로서의 질긴 뿌리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작가는, 중국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결국 '외국'일 수밖에 없음도 또한 지적한다. 10여만의 동족이 모여사는 연변에서도 동포들이 '우리나라'라고 할 때는 '중화인민공화국'임을 뜻하며, 비록 동족들과 어울리는 자리라 하더라도 언제나 다른나라를 여행하는 '過客'

**중국에서는 '朝鮮族'으로,  
소련에서는 '카레스키'로 불리는  
한인들의 삶의 모습을 잔잔한 감동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이 책은, 민족의  
동질성이란 결코 외양의 낮익음이나  
소박한 감상만으로 회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아프게 지적하고 있다.**

으로서의 긴장감을 떨칠 수 없었다고 작가는 말한다. 민족의 동질성이란 결코 외양의 낮익음이나 말초신경적 감상만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아프게 지적하고 있다.

소련편에는 1930년대만 해도 연해주 일대에 살다가 스탈린의 강제 집단이주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쫓겨나 알마아타,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등에 정착하게 된 한인들의 삶이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한반도와는 어떠한 접촉이나 인연이 없는 낯선 땅에 싫든 좋든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40만 在蘇 한인들의 파란만장한 삶의 어제와 오늘이 담겨 있다.

그곳에는 알마아타의 황오디엔 노인처럼

3·1 운동 후 일제에 쫓겨 만주지역에서 항일 무장투쟁과 불세비키赤軍활동을 벌였던 교민 1세대가 있는가 하면, 조국과 모국어와는 전혀 무관한 채 소련인으로만 자라는 3세대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으로부터의 정치적 망명객들도 있고, 남한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통일을 고대하는 노파도 있다.

작가는 이 '엉뚱한' 땅에 그토록 많은 동족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상상하기도 힘든 처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온 그들의 삶에 절로 머리가 숙여짐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그러나, 그런 삶을 야기시킨 '우리의 무력하고 비굴했던 지나간 역사'에는 한가닥 분노마저 느끼고 토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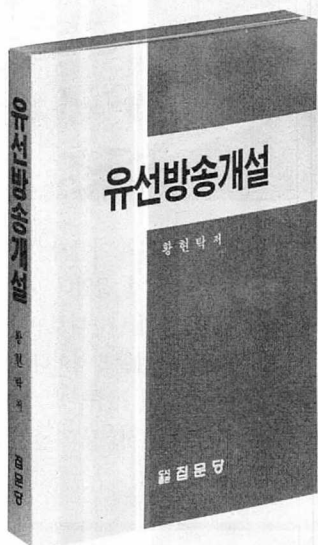
이념의 벽 때문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낯선 땅에서 피를 나눈 동족을 만나며 경험하는 신선한 충격과 당혹을 통해 과연 '우리'는 누구이며, 한반도 밖의 '우리인' 그들은 누구인가를 새삼 성찰케 하는 책이다.

작가 김은국씨는 이 책의 발간을 기해 지난 13일 서울 교보문고에서 독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을유문화사 / B5변형 / 244면 / 9500원

## 실무경험 반영한 유선방송입문서

황헌탁 지음 「유선방송개설」



최근 체신부는 서울 강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내년 7월부터 종합유선TV방송(CATV)을 시범적으로 방영하기로 한 정부당국의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유선방송시대의 도래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 방면의 시의적절한 입문서 「유선방송개설」이 최근 간행돼 관계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책은 특히, 현직 문공부 서기관인 저자가 15년여의 방송관계 실무경험을 토대로 외부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행정관청의 각종 자료들을 풍부하게 취합, 정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참고자료적 가치가

돋보인다.


모두 8장으로 나누어 우리나라에서의 유선방송 발달사를 비롯, 사업의 허가절차, 소유문제, 운용상태, 프로그램 공급현황, 저작권 보호 문제, 가입자 부담금 등의 문제를 두루 살피고 있는데, 각 장마다 미국 및 일본 제도와와의 비교·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일종의 시론적 성격을 띠는 '유선방송제도의 발전방향'에서는 방송·통신기술의 발달에 걸맞는 바람직한 유선방송제도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한편, 그 내용을 법안화한 '유선방송관리법개정(안)'도 함께 제시했다.

부록으로는 1986년 12월에 제정된 '유선방송관리법' 전문과 그 시행령 및 각종 서류의 양식, 1962년 제정되고 1986년 5월에 최종 개정된 '유선텔레비전방송법', 그리고 미국 상·하 양원에서 유선방송에 관한 국가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해 1984년 제정된 '유선통신정책법'의 전문을 번역해서 실었다.

유선방송에 대한 교과서적 개설서로 이 분야 종사자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될 뿐 아니

라, 유선방송을 고작 비디오테이프 송신 정도로 여기는 일반의 잘못된 인식을 깨우치는데도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책이다.

집문당 / A5신 / 442면 / 8000원



표지디자인·본문편집·제작

서울·중구 충무로 4가 132-5호

279·1323